

문서번호	국제 02040 -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2. . .
공개여부	공개

기안	과장	국장		청장
협조	물가통계과장			

제1차 한·몽골 통계협력회의 참가결과 보고

2002. 8.

통 계 청

제1차 한·몽골 통계협력회의 참가 결과보고

1. 주요일정(세부일정 별첨1)

- 2002.6.27.~28. : 몽골 울란바토르 통계청, TUV지방통계 사무소
- 2002.6.29.~30. : Terelj국립공원

2. 회의내용

- 한·몽골 통계협력합의서 서명(합의서 별첨2)
 - 오종남 통계청장 답사(별첨3)
- 한·몽골 통계협력방향토의(별첨4)

3. 회의관계자

- 한국측 : 단장 통계청장 오종남
단원 통계청 국제통계과장 허진호
물가통계과장 제정분
청장비서관 강종환 사무관
- 몽골측 : 통계청장 Davaasuren외 다수

4. 기타 참고사항

- 수집자료
 - 몽골개요
 - 몽골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고
 - 몽골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요약

<별첨 1>

몽고 방문일정

- 6. 27(목) 07:40-11:30 인천 → 몽고 울란바토르(KE 867)
 - 11:30- 공항영접 및 호텔 안내
 - 13:00- 중식 (몽고통계청 Host)
 - 14:30- 몽고 통계청 방문 및 간부소개
 - 15:30- Zaisan hill, Bogd Khan museum, Gandan temple 방문(울란바토르 시내)
 - 18:00- 만찬 (몽고통계청장 Host)

- 6. 28(금) 09:30-10:30 양국간 통계협력합의서 서명식 및 양국간 통계발전방향 토의
 - 11:00- 11:20 울란바토르 시장 예방
 - 11:20- 12:00 몽고 지방통계사무소로 이동(45 km)
 - 12:00- 13:00 몽고 지방통계사무소 방문 및 토의
 - 13:00- 14:00 중식 (지방통계사무소 Host)
 - 14:00- 16:00 농촌지역의 생활상 견학
 - 17:00- 17:45 울란바토르로 이동
 - 19:00- 20:00 민속공연 관람
 - 20:30- 만찬 (주몽고 한국대사관)

- 6. 29(토) 지방시찰 (Terlj 국립공원)

- 6. 30(일) 지방시찰 (Terlj 국립공원)

- 7. 1(월) 12:30-15:55 몽고 울란바토르 → 인천공항(KE 868)

<별첨 3>

답 사

2002. 6. 27.

- 존경하는 Dr. Davaasuren Chultemjamts 몽고 통계청장님, 그리고 간부여러분!
- 오늘 이렇게 저희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지난 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와 IMF에서 몽고를 담당하는 대리이사로 있을 때 몽고에 올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는데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와서 몽골인과 우리 한국인 사이의 역사적·인종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여러분이나 저나 몽골사람과 한국사람은 모두 ‘몽골반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몽골 어린이들이 즐겨노는 ‘제기차기’ ‘공기놀이’ ‘실뜨기’는 저도 어려서 즐기던 한국 어린이들의 전통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아리랑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몽골인이 가장 구성지게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밀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인이 어찌 몽골인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이번에 이러한 한·몽골의 역사적·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양국간 통계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기 위해 몽골에 왔습니다.

- 저는 지난 2월까지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통계청장을 맡은 지는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5년이래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통계자료를 옆에 두고 활용해왔기 때문에 통계의 중요성은 누구 못지 않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 통계를 이용자측면에서만 보다가 통계청장을 맡아 생산자의 입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통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통계작성을 위한 기술은 발달하고 있는 반면,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는 평소 통계의 품질은 “이용자에게 적합해야 한다”(fitness for use)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 실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간 교류협력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한·몽골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협력회의시 이러한 사항들을 기탄없이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 이번의 한·몽골 통계협력회의는 약 천년전인 서기 995년 우리 한국인의 조상인 고려의 학생들이 몽골로 유학을 오면서 시작된 오랜 교류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몽골 통계청장님과 간부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한·몽골 통계협력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선린우호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환대를 좋은 추억으로 고이 간직할 것이며, 제

가 평소 바랐던 몽골 통계청 방문이 참으로 유익했었다고 두고두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오늘의 만남을 시작으로 양국 통계당국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어서 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별첨 4>

한 · 몽골 통계협력방향 토의

몽골통계청장 Davaasuren

- 몽골 통계청 인력은 73명. GDP 및 빈곤관련통계는 통계청이 담당. 보건 및 예산부처에서는 해당통계 담당
- 10년전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변화, 통계청 업무를 함에 있어 국제기구, 외국통계청의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음 (UN통계기구, ADB, 세계은행, IMF, EU 등)
-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project가 현재 19개 있음
- 97년부터 통계관련법을 개정, UN의 통계관련 기준에 맞게 개혁하고 있음
- 사회주의 시기에는 정부의 행정보고통계 위주의 업무, 지금은 독립적, 전문적인 조사업무 지향. 통계청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음
- 본인은 임기 6년의 계약직(2003년 임기만료)
- 통계청의 60%가 여성공무원. 연령이 많은 사람은 러시아 유학과. 최근에는 국내파가 다수. 통계청 직원 평균연령은 30~35세로 젊은 편
- 지방사무소는 소장만 임명. 이하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도청)에서 지원. 전국적으로 250명 정도가 통계청 소속 공무원. 인구센서스때에는 중·고교 교사를 임시 활용하였음
- 사회주의 시기에는 통계청 직원이 본부에만 500명. 이는 당시 프로그램 및 인쇄 등에 350명 투입. 현재는 전산화로 인력 절감. 현재 본부 1인당 컴퓨터 1대. 과거 전화로 자료 전달하였으나 지금은 internet을 활용

- 30명의 외국전문가와 같이 일함
- 영아 출생사망률의 경우 사회주의 시기에는 보고에 의존. 지금은 조사가 어려움. 보건부 통계와 2배 차이가 난 경우가 있는데 외국전문가가 판정한 결과 통계청 자료가 옳은 것으로 나타남

오종남통계청장

- 통계신뢰도 향상이 당면과제. 과거 한국 쥐의 숫자를 몇마리 단위까지 조사 발표하여 웃음거리.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만들어야겠다(fitness for use)
- 대통령 경제보좌시 통계를 많이 이용. 한국의 기업경영자들은 통계청의 business survey index, 고용통계, 물가통계 자료에 절대적 의존. 앞으로 기업에 대해 맞춤형 통계, commercial base관매를 구상중. 6월초 OECD 통계기관장회의시 OECD 통계국장과 얘기를 나눈 바 이용자 입장을 중시하는 같은 생각을 확인하였음
- 통계조사환경이 열악한 점에 대해 동감(not fully capture). 우리나라 통계청도 몽골 통계청과 비슷하게 분산형. 통계법상 조사 거부, 부실답변에 대한 제재가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는 없음
- 지난번 파리에서 OECD Pacific Rim country 통계기관장회의에서 개도국 통계기술협력방향에 대하여 OECD통계국은 국민계정과 같은 기본통계에 역점을 두고, 개별 국가간은 양자협력(bilateral) 관계를 통해 각국의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통계기술협력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하였음

<별첨 5>

한·몽골 통계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02. 6. 27. ~ 7. 1.)

친애하는 통계가족 여러분 !

7월 1일자 대폭 인사로 사무실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지난 2월 통계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저는 UN, OECD 등의 각종 국제통계회의에 참석하고 양자간 통계협력회담에 임하는 등 통계의 국제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소간의 성과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몽골을 방문하여 “한·몽골 통계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개최된 “제1회 한·몽골 통계기관장회담”에 참석하여 양국간 상호 통계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우리나라와 몽골간의 통계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몽골 통계청과의 첫 만남은 지난 3월 UN통계위원회 회의 출장시에 몽골 통계청장(Dr. Davaasuren)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교류는 1천년전 몽골에 고려 유학생이 간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몽골인은 인종적 동질성이 커서 양국간 협력관계는 조금만 노력하면 보다 더 긴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을 방문한 것은 양국간의 통계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초청에 먼저 응함으로써 앞으로 몽골 직원들이 부담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장으로 한국과 몽골간 통계협력의 길은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는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듯이 몽골도 20년 후에 오늘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의 협력관계 출범을 고맙게 기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7월 11일부터 1주간 몽골 통계청의 간부급 직원 10명이 우리 통계청을 방문하여 통계청의 조직, 기능 및 각종 주요통계에 대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시다. 그리고 상호 유익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로 삼읍시다.

통계가족 여러분 !

이번 협정 체결로 이제 우리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의 독일과 남미의 콜롬비아에 이어 후발개도국인 몽골에 이르기까지 통계협력의 발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통계선진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여기에 걸맞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나라에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어 줌으로써 개발연대에 우리가 진 빛을 갖고 공존공영의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베트남, 태국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시야를 넓히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노우하우와 감각을 익힌 직원이 돌아와 국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통계의 질도 한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2. 7.10.

통 계 청 장

오 중 남